

국가 간 협상의 지혜

- 루이지애나와 알래스카 판매 협정을 중심으로 -

I. 국가 간의 협상

II. 프랑스와 미국의 루이지애나 판매 협정

1. 시대적 배경
2. 토머스 제퍼슨의 전략

III. 러시아와 미국의 알래스카 판매 협정

1. 시대적 배경
2. 앤드류 존슨의 전략

IV. 협상 체결 후

국가 간 협상의 지혜

- 루이지애나와 알래스카 판매 협정을 중심으로 -

I. 국가 간의 협상

협상에 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협상은 결렬될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간의 협상은 매우 어렵다. 이는 협상에 참여한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더욱 그러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의 협상의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국민의 이익이나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자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국가 간의 협상은 자국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협상 당사자의 의중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협상 당사자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끔 문제되기도 하는 도청과 자료절도 등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상 대상국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유능한 협상가는 그들에게 닥치는 난관을 잘 헤쳐 나가면서 놀랄 만한 성과를 이뤄낸다. 이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그 나라의 영토뿐만 아니라 영향력까지 바꿔 놓는다.

여기에서는 협상을 통해 영토도 넓히고, 자원도 확보했으며, 세계적 강대국으로 만든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가 간의 협상에 대해 알아본다.

II. 프랑스와 미국의 루이지애나 판매 협정

1800년 프랑스는 스페인과 비밀리에 산 일데폰소 조약(Treaty of San Ildefonso)을 맺어 ‘프렌치 인디언 전쟁(French and Indian War, 1755~1763)’으로 잃었던 현재 미국 중부의 214만km²의 땅을 되찾았다. 이는 당시 미국의 영토와 맞먹는 크기였다. 동쪽으로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로키산맥 사이의 땅으로 17세기 프랑스 탐험가 라 실이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에 바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루이왕의 땅’이라는 뜻의 루이지애나라고 붙였다.

프랑스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장차 프렌치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하려 했다. 나폴레옹 1세는 루이지애나를 팔라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다. 그런데 1803년 4월, 나폴레옹 1세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루이지애나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물론 이 과정에 토머스 제퍼슨의 전략이 한 몫을 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상에 대해 알아본다.



〈1803년 당시 루이지애나 지도〉¹⁾

1) 사진의 출처는 “서부 개척과 연방 정부의 지원,”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5933>(검색일: 2014. 3. 26.)이다.

1. 시대적 배경²⁾

1700년대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의 주요 경쟁국은 영국이었다. 1700년대 중반까지 영국이 지배한 식민지는 북아메리카의 동부와 자메이카, 바하마 정도였고, 프랑스의 식민지는 현재의 캐나다 동부와 뉴올리언스 항구를 포함하는 루이지애나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과 손을 잡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³⁾에서 망신을 준 프로이센에게 복수하고자 했다. 이에 프로이센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이로써 유럽은 물론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까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을 ‘7년 전쟁(1756~1763)’이라고 부르고,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벌어진 프랑스·인디언 동맹과 영국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른다.

사실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북아메리카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소규모 충돌은 자주 있었다. 북아메리카에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영국에 비해 훨씬 넓었지만 그 곳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은 7만여 명에 불과했고, 영국인은 130여만 명이였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13개 식민지⁴⁾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영국은 서부 경계를 이루고 있던 애팔래치아 산맥의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나갔다.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인구의 열세에 있었지만 이러한 영국의 태도에 대해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2) 김성남, 2012, “미국독립전쟁 - 프렌치 인디언 전쟁과 영국의 식민지 억압,”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4&contents_id=14746(검색일: 2014. 2. 28.), “루이지애나 매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9030&cid=40942&categoryId=31657>(검색일: 2014. 2. 28.)를 참조했다.

3)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1748)은 여자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살리카 법(Lex Salica)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가 합스부르크 왕가를 계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엔 지방을 점령하면서 시작된 전쟁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프로이센의 편에 섰고 영국이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국제 전쟁으로 발전했는데 1748년 아헨 조약을 맺어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 지방을 프로이센에 넘기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8%A4%EC%8A%A4%ED%8A%B8%EB%A6%AC%EC%95%84.%EC%99%95%EC%9C%84.%EA%B3%84%EC%8A%B9.%EC%A0%84%EC%9F%81>(검색일: 2014. 2. 28.)).

4)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가 13개 식민지에 해당한다 (“13개 식민지,”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13%EA%B0%9C.%EC%8B%9D%EB%AF%BC%EC%A7%80>(검색일: 2014. 2. 28.)).

유럽에서 1756년 이른바 ‘7년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1759년 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다. 이와 함께 북아메리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1759년 9월에 제임스 올프가 이끄는 영국군이 프랑스령의 수도였던 퀘벡을 함락시켰고, 1763년 파리조약에 따라 캐나다 전체가 영국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어 북아메리카의 주도권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의 식민지였던 캐나다 지역은 영국에게, 루이지애나는 스페인에게 빼앗겼다.

영국은 새로 획득한 식민지의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1764년 ‘설탕 조례(Sugar Act)’를 강력하게 집행했으며, 1765년에는 북아메리카에 주둔하는 영국군의 주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지 조례(Stamp Act)’와 군대 지휘관들이 민간 주택을 징발하여 휘하 병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군대숙영 조례(Quartering Act)’ 등을 제정하였다.

이렇듯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식민지민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일부 식민지인들은 이러한 영국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였는데, 가장 알려진 조직이 ‘자유의 아들들(Sons of Liberty)’⁵⁾이다. ‘자유의 아들들’은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했지만 유력인사들을 하나로 모았고, 후에 구성원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대륙회의를 만들었다.

1773년 영국은 창고에 차가 많이 쌓였지만 팔 길이 없어지자 이를 식민지에 처분하기로 하고 ‘차 조례(Tea Act)’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식민지에서는 이미 차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도 강제로 더 많은 차를 수입해야 하고 세금까지 물어야 했다. 식민지의 성난 군중은 보스톤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에 올라 324개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 그러자 영국은 보스톤 차 사건으로 동인도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시한 ‘보스톤 항구 조례(Boston Port Act)’를 제정하였다. 이에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1774년 9월 첫 대륙회의를 열었으며, 민병대를 소집하였다. 결국 1775년 4월 아메리카 식민지인들과 영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영국의 힘이 약화되기를 바랐던 프랑스는 아메리카의 식민지에서 봉기가 일어나

5) 자유의 아들들(Sons of Liberty)은 미국 독립 전쟁 이전의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의 애국 급진파의 통칭이다. 그대로 이름을 딴 시민 조직이 각지에서 결성되었으며, 독립 전쟁에 많은 역할을 했다. 특히 새뮤얼 애덤스가 중심이 된 보스톤의 조직은 1773년 ‘보스톤 차 사건’을 일으켰다 [“자유의 아들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C%9D%98_%EC%95%84%EB%93%A4%EB%93%A4(검색일: 2014. 2. 28.)].

자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라파예트 등이 이끄는 수천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과 함께 싸우도록 했다. 파견된 프랑스군은 1781년 9월의 체사피크만 해전과 10월의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치는 등 미국의 독립을 도왔다.

나폴레옹 1세가 권력을 장악하자 프랑스는 빼앗겼던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되찾고자 노력했다. 그 첫 번째로 1800년 스페인과 비밀리에 산 일테폰소 조약을 맺어 잃었던 루이지애나를 되찾았다. 이 조약으로 인해 1795년 미국이 스페인과 맺은 ‘뉴올리언스를 계속 스페인의 영토로 두되 미국인의 미시시피 강의 자유 항행권과 뉴올리언스 무관세 선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핀크니 조약이 무효화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물류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미시시피 강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많아졌다. 실제로도 나폴레옹 1세는 뉴올리언스에서 미국 배들의 무관세 선적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선포하였고, 플로리다의 일부 거점과 생도맹그(아이티) 등에 병력을 파견하여 미국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의 북부지방에서는 농업이 발달하였다. 이곳에서 수확한 많은 농산물을 보스턴이나 뉴욕 등 동부의 대도시로 운반해야 했다.

그러나 육로로 운반하려면 험난한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야 하는 데다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인디언들의 약탈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안전한 미시시피 강을 이용해 농산물을 운반하였는데, 미시시피 강 하구인 뉴올리언스 항구는 루이지애나에 속해 있어 농부들은 매년 프랑스 측에 거액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에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프랑스로부터 뉴올리언스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그의 제안을 나폴레옹 1세는 단칼에 거절하였다.

당시 미국인들은 프랑스령인 뉴올리언스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2. 토머스 제퍼슨의 전략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뉴올리언스를 팔라는 자신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는 프랑스 측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⁶⁾을 준비했다. 그 전략을 논하기 위해서는 토머스 제퍼

6) 함규진, 2013, “루이지애나 매입 협정,”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4&contents_id=30753 (검색일: 2014. 2. 27.)을 참조했다.

손의 삶)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며 미국 독립 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다. 그는 영향력 있는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미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계몽사상을 자신의 평생 정치 철학으로 삼았다. 특히 그는 계몽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며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상을 펼쳤다.

또 그는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 원예가이고 정치인이었으며, 법률가, 건축가, 과학자, 고고학자, 고생물학자, 작가, 발명가, 농장주, 외교관, 음악가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재임기간 동안 거부권을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는 1784년부터 1789년까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후임으로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생활을 하였다.

그는 공사 생활을 하는 동안 파리의 살롱 문화를 좋아했다. 프랑스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의 만찬 파티에 자주 초대되었으며, 그의 뛰어난 프랑스어 실력은 프랑스의 유명 인사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보낸 5년간의 공사 생활을 통해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 교류(交遊)하며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토머스 제퍼슨은 프랑스가 1800년 산 일데폰소 조약으로 루이지애나를 다시 가지게 되자 뉴올리언스 항구를 미국이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국 북부의 농민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동부의 대도시로 운송하려면 뉴올리언스 항구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 항구가 프랑스령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 첫 임기의 취임사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뉴올리언스를 미국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비전을 피력하였다.

7) “토머스 제퍼슨,”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86%A0%EB%A7%88%EC%8A%A4_%EC%A0%9C%ED%8D%BC%EC%8A%A8(검색일: 2014. 3. 3.)을 참조했다.

그는 1803년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인 로버트 리빙스톤으로 하여금 뉴올리언스 매입 협상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나폴레옹 1세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토머스 제퍼슨은 나폴레옹 1세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전략을 짰다. 프랑스 공사로서의 생활을 통해 잘 알게 된 프랑스의 사정을 활용한 것이었다.

당시 나폴레옹 1세는 ‘프렌치 아메리카 제국’의 건설을 위해 매제인 샤를 르클레르 장군에게 2만 5천 명의 병력을 주어 식민지였던 생도맹그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도록 했으나 황열병이 돌아 병력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바람에 철수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숙적 영국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어서 전쟁자금이 필요했다. 결정적으로 나폴레옹 1세는 루이지애나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 사실 토머스 제퍼슨도 루이지애나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보다는 뉴올리언스만을 절실하게 원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프랑스가 뉴올리언스의 판매를 거부하자, 프랑스가 영국과 결전을 앞두고 있어 전쟁자금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가 영국과 동맹을 맺고 함께 프랑스와 싸우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약점을 파고 들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프랑스의 거물 정치인인 뒤퐁 드느무르를 통해 “미국은 적절한 가격에 뉴올리언스를 매입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는 내용을 나폴레옹 1세에게 전했다. 그의 예상대로 나폴레옹 1세는 미국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에 대항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뉴올리언스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 전체를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살 수 있었다.

토머스 제퍼슨이 루이지애나의 매입 협상에 임하면서 사용한 전략은 프랑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루이지애나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 절박함이 없었다. 절박함은 오히려 미국에 있었다. 프랑스의 약점을 찾는 데는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로 활동했던 경험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프랑스 귀족들과의 교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점, 영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 전쟁자금이 필요하지만 더 큰 부담은 다른 나라가 영국편을 들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이용한 것이다. 사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과 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었다. 뉴올리언스의 매각을 반대하는 나폴레옹 1세를 압박하기 위해 영국과의 동맹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나 입장을 철저히 감춘 채 프랑스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리한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Ⅲ. 러시아와 미국의 알래스카 판매 협정

러시아는 1741년 탐험가 베링이 발견한 이후 알래스카를 계속 통치하고 있었다. 1800년대만 해도 알래스카의 가치는 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얼음에 덮인 땅으로 그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라야 물개가죽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캐나다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아메리카에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알래스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알래스카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알래스카 지도〉

1. 시대적 배경⁸⁾

크림 전쟁(Crimean War, 1853~1856)은, 러시아가 오스만투르크 안에 있는 정교회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중동을 둘러싼 러시아와 유럽 열강이 충돌한 싸움이다. 러시아가 1853년 7월 남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스만투르크의 지배하에 있던 도나우 강 연안의 몰도바와 왈라키아를 점령하자, 서유럽 열강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투르크가 그해 10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1850년 팔레스타인에서 기독교 성지의 권리를 두고 가톨릭교와 정교회가 다투게 되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가톨릭교의 권리를 오스만투르크가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는 1853년 1월 팔레스타인에서의 분쟁은 정교회 신자들의 주장대로 해결되어야 하며, 오스만투르크에 살고 있는 정교회 신자 1,200만 명의 보호권은 러시아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오스만투르크에 통첩을 하였다. 오스만투르크는 협상 끝에 첫 번째 요구는 수락했으나, 두 번째 요구는 자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853년 7월 니콜라이 1세는 1774년에 러시아와 오스만투르크가 맺은 정교회 신자들의 보호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약을 거론하며, 오스만투르크의 지배하에 있던 몰도바와 왈라키아를 점령하였다.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영국과 프랑스는 지원을 약속하며 오스만투르크로 하여금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도록 했다. 전쟁 초기의 전세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 러시아의 함대가 소아시아의 오스만투르크 기지를 공격하여 초토화시켰다.

영국과 프랑스는 1854년 2월 러시아에 몰도바와 왈라키아에서 퇴각할 것을 요구하였고, 러시아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해 3월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투르크 편을 들며 전쟁에 개입했다.

영국·프랑스·오스만투르크 연합군은 흑해는 물론, 발트 해, 백해, 베링 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러시아 해안에서 함대와 요새에 공격을 가해 러시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1854년 9월에는 크림 반도에 상륙해 알마 강변의 언덕에서 러시

8) “크림전쟁,” 브리태니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2k0619a (검색일: 2014. 3. 3.), 이무열, 2009, “무너지는 제정러시아 - 크림 전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239&cid=814&categoryId=1926>(검색일: 2014. 3. 3.)을 참조했다.

아군과 싸워 이겼다.

농노들이 주축을 이루는 러시아군의 사기는 날로 떨어졌고,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가혹한 징세와 지폐 남발로 인플레이가 격화되어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높아갔다.

1855년 3월 니콜라이 1세가 죽고 패색이 짙어가자 뒤를 이은 알렉산드르 2세는 1856년 3월 파리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흑해에 함대를 배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오스만투르크에 살고 있던 정교회 신자들에 대한 보호권 주장도 철회했다. 러시아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그 당당하던 위세를 잃고 처참한 굴욕을 맛보았다.

2. 앤드류 존슨의 전략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영국이 알래스카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북아메리카에서의 세력 확대에 대해 우려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알래스카를 미국이 사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래스카 매입에 대한 그의 입장과 전략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¹⁰⁾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80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에서 출생한 앤드류 존슨은 세 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며, 너무 가난해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14세 때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테네시 그린빌에 자신의 양복점을 열었다. 18세 때 구두수선공의 딸인 엘리자 맥커들과 결혼하였다. 앤드류 존슨의 자기계발은 결혼한 후부터 시작됐다. 아내에게 글을 배워 매일 밤 책을 읽으며 교양을 쌓았다. 불혹의 나이가 됐을 때 그는 달변가요 명필가로 변해 있었다.

1864년 공화당은 링컨 대통령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민주당원이면서 남부사람이었던 앤드류 존슨을 지명했다.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앤드류 존슨은 강직하고 존경 받을 만한 정치인이었지만 험난한 정국으로 인해 불행한 재임 기간을 보냈다. 의회에는 공화당 과격파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이들은 일사불

9) “알래스카 매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5%8C%EB%9E%98%EC%8A%A4%EC%B9%B4_%EB%A7%A4%EB%A7%A4(검색일: 2014. 2. 28.)를 참조했다.

10) “앤드류 존슨,”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4466&cid=481&categoryId=481>(검색일: 2014. 2. 26.)를 참조했다.

란한 조직과 가차 없는 전술로 당시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가 이들을 상대하기엔 버거웠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경험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알래스카 매입과 같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성사시켰다.

크림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알래스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인디언들이 땅을 ‘거대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별명에 걸맞게 그 면적이 152만km²이었다. 영국은 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기를 완전히 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가 영국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앤드류 존슨도 영국이 알래스카를 지배하게 된다면 북아메리카 내에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함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흉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국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앤드류 존슨은 먼저 알래스카에 대한 영국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시 영국은 최초의 여성 군주였던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1861년 여왕의 남편이었던 앨버트 공이 죽자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어서 국제정세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빅토리아의 갱년기’라고 불렀다. 영국의 입장은 알래스카를 간절히 원하고는 있으나, ‘빅토리아의 갱년기’ 동안에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었다.

앤드류 존슨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1867년 당시 국무장관이던 윌리엄 슈워드에게 은밀히 알래스카의 매입을 지시했다. 윌리엄 슈워드는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공사인 에두아르트 스테클을 상대로 매입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캐나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이 알래스카를 무력으로 점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의 약점을 파고 들어 설득하였다. 협상결과, 미국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라는 험값으로 매입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을 끝낸 후라 기존의 러시아 영토 유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알래스카에 대해서는 영국군의 무력점령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매하면서 간

과한 것이 있었다. 당시 영국은 미국과의 대립으로 알래스카를 침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미국은 남북전쟁의 피해회복에 더 힘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비록 크림 전쟁에서 패하긴 했지만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했다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앤드류 존슨이 알래스카의 매입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정세분석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외교력에 있다 할 수 있다.

먼저 강력한 경쟁 상대국인 영국이 이른바 ‘빅토리아의 갱년기’였기 때문에 알래스카를 강력히 원하고는 있으나 차지하려는 의지가 적다는 것을 알아내 비밀리에 러시아와 알래스카 매입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크림 전쟁의 패배에 따른 자금난, 영국과의 관계 등을 집중 공략한 미국의 집요한 전략이 알래스카의 매입을 가능하게 했다.

러시아로서는 매각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도록 한 점이 앤드류 존슨의 성공적인 알래스카 매입 협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IV. 협정 체결 후

미국인들은 토머스 제퍼슨의 루이지애나의 매입과 앤드류 존슨의 알래스카 매입을 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땅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비판했다.

루이지애나의 매입의 경우, 토머스 제퍼슨은 나폴레옹 1세의 마음이 변할 것을 우려해 1803년 5월 1일에 서둘러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의 매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는 늑대, 떠돌이 인디언, 엄청난 쓰레기뿐인 땅을 가뜩이나 부족한 돈으로 사들였다”며 토머스 제퍼슨을 비난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결정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헌법의 기초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기초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새로운 영토를 획득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기가 어려웠다.

토머스 제퍼슨은 평소의 소신까지 버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루이지애나 매입 협정도 엄연한 조약이다”라며 야당의 반대에 대응했다. 토머스 제퍼슨의 설득으로 1803년 10월 20일 상원은 26대 5로 비준했고, 5일 뒤 하원에서 예산의 지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임스 월킨슨 대령이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올리언스로 가서 프랑스 대표에게서 루이지애나를 공식 인계받았다.

토머스 제퍼슨이 매입한 루이지애나는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를 비롯해 아칸소, 텍사스 북동부,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동부, 미네소타, 미주리, 캔자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아이다호 등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루이지애나를 판 프랑스나 이를 인수한 미국은 그렇게 큰 지역인지 알지 못했다.

미국이 루이지애나를 인수함으로써 당시 영토를 2배 가량 늘리게 되었고, 서부개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알래스카의 매입의 경우, 미국인들은 얼어붙은 아무 쓸모없는 땅을 720만 달러라는 거금을 주었다며, 알래스카 이름 대신 협상을 진행한 슈워드 의 이름을 붙여 ‘슈워드의 바보짓’, ‘슈워드의 냉장고’, ‘다 빨아먹은 오렌지’ 등으로 부르며 조롱했다. 따라서 이 역시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윌리엄 슈워드 장관은 “눈 덮인 땅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寶庫)를 사자는 것”이라는 논리로 의회를 설득했다. 1867년 4월 9일, 상원은 37 대 2로 협정을 비준했으나 알래스카 매입비용의 승인은 하원의 반대로 지연되었다. 하원은 상원에서 비준한 후 1년이 지난 1868년 7월 113 대 48로 매입비용의 지출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매입했지만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의회로부터 매입 협정에 대해 비준을 받아내긴 했지만 효용가치가 없는 땅을 샀다는 반대여론은 여전했다. 이로 인해 윌리엄 슈워드는 국무장관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알래스카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매입 협정이 체결된 후 30년이 지난 1897년 유콘 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 골드러시를 이루면서 3년간 채굴된 금의 양이 57만kg이나 되었다. 알래스카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71년에는 유전이 발견되었고 확인된 매장량만 45억 배럴에 이르렀다.

현재 알래스카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

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생태계의 보고로 이름을 얻으며 인기 있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알래스카는 기회의 땅, 기적의 땅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에 힘입어 이 땅을 산 것에 대해 놀림으로 사용되었던 ‘슈워드의 바보짓’이란 말이 지금은 ‘당대에는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나 훗날 높게 재평가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북전쟁으로 갈라진 국가를 통합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치적을 말할 때 미국 역사상 최대의 횡재였던 ‘알래스카 매입사건’은 빠지지 않고 있다.

토머스 제퍼슨이나 앤드류 존슨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하였고, 협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확신을 가지고 설득했다. 이 협정들은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들의 정치생명과도 연결된 것이었다. 토머스 제퍼슨은 자신의 소신까지 버렸으며, 앤드류 존슨은 알래스카 매입 협정 후 정치생명이 끝이 났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 그들은 당대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오늘날 강대국 미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에는 의심할 바 없다.